

◎ 李潭氏蒐集李朝白磁展示

國立博物館에서 白磁蒐集家 李潭氏의 所藏白磁九十點을 十一月 十二일부터 二週日間 展示한다.

◎ 全國歷史學大會開催

韓國史學會主管으로 第六回 全國歷史學大會가 지난 十月 二六、二七 兩日에 걸쳐 高麗大學校 大講堂에서 開催되었는 바 二六日 午前에 있었던 考古美術의 研究發表는 다음과 같다.

蔡秉瑞·高句麗下代王陵考

◎ 有光教一教授講演會(幻燈使用)

十月 二十八日 九時半부터 正午까지 서울大 東亞文化研究所主催로 文理大 視聽覺教室에서 金元龍教授講義으로 開催되었는데 題目은 「考古學上으로 본 韓國과 日本」(第一部 金石期、第二部 古墳期)

◎ 文化財愛護期間

例年에 따라 十一月 一日부터 十日까지 啓蒙과 表彰等 各種行사가 進行되었다.

石窟庵通信(十四)

鄭 明 鎬

돌의 콘크리트工事は 完了되었고 外壁의 防水工事が 끝나자 一尺厚의 粘土層을 形成하면서 盛土工事を 進行하고 있다. 이같은 盛土工事を 包含하는 二次工事的 契約에 따라 環境整理工事が 進行되고 있다. 暗渠工사와 配水管設置作業도 大體로 끝이났고 二重室內部의 防水作業도 完了한 단계에 이르르고 있다(十一月 五日現在)

第四卷 第十二號 通卷四十一號

前室의 木部工事は 椽木를 治材하면 곧 組立할 段階이고 門扉나 光窓 交窓의 무늬나 手法도 決定을 보아 組立後 即時 着手하기로 되었다. 其他 鐵物裝具에 資料의 蒐集과 論議도 一段落을 보아 成型하는 데로 鑄造하거나 彫刻하기로 한 바 鐵物의 樣式은 되도록 新羅의 것을 본뜨기로 하였다.

蓋瓦工事も 日氣가 順調로워 相當히 進捗되었다. 女·夫莫斯瓦와 方博·鬼面 鷓尾의 造成은 彫刻家 尹京烈氏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環境整理工事が 始作된 以來 採取하여 놓았던 自然石의 選定과 築石의 位置 또는 方法에 대하여 檢討하여 왔었던 바 設計委員인 崔淳雨氏와 監督部와의 連席會議에서 最終의 成案을 보아 築石方法은 壽光殿後麓의 羅代遺構를 模하기로 하고 勾配등은 周圍의 地勢와 알맞게 하며 흙을 막는 石築도 이 傾斜面 흐름에 따라 自然스럽게 處理하여 人工的인 솜씨를 길게 내놓기 지 않도록 施工할 것을 原則으로 삼았다. 이때 日人들이 쌓은 石築은 모두 撤去하며 倭色이 加味된 部分이 殘存하는 일이 없도록 함에 合議하였다.

石窟庵現場에서 開催된 第十五次文化財委第一分委는 日帝施工인 前室屈曲部가 여러가지 點에서 信憑할 만한 復元이 아니었다는 事實을 보이는 새로운 資料가 檢討되므로써 屈曲部를 퍼서 나란히 세울 것을 議決하였다. 이로써 現場에서는 即刻 그에 좇아 石材를 準備하기 시작하였다. 丹青文樣과 配色關係는 林泉氏가 作成하고 그것을 檢討하여 決定한다는 方針을 決定하였다.

이 期間中 來訪한 人事는 다음과 같다.

文化財委員一行(10/2), 朴正熙議長一行(10/17) 崔淳雨國博美術課長(11/1 11/3) 桂慶北大學總長, 羅博物館長一行(11/2), 京鄉新聞李龜烈·한국일보 孫基祥·大韓日報 李鍾碩(11/3)

文獻에 나타난 在銘高麗酒器의 一例

金 庠 基

金石學에 있어 器皿의 銘文에는 鍾鼎彝器의 것을 비롯하여 여러 種

— 第四卷 第十二號 通卷四十一號 —

類에 걸쳐 貴重한 歷史的 考古學的 資料가 많이 包含되어 있는 것인 바 陶磁의 銘文도 또한 이에 (石文의 一種으로) 歸屬시켜 볼직한 것이다. 在銘陶磁器는 高麗時代의 것도 적지 아니 남아 있으나 대개는 그 물건의 所屬處의 이름이 박혀 있거나 或은 短句의 文面이 들어 있는 程度인 것이다. 그런데 孝·顯時代人인 (仁祖十四年—肅宗二十五年(西紀一六三六—一六九九)) 葵亭 申厚載先生의 葵亭集에 依하면 高麗의 酒器로서 長七言律(八句)에 「松峴閣」三字를 合하여 全五十九字의 銘文을 지닌 것이 있었다 한다.

同集 卷六 「次古酒器韻」序에

尙州 永順里之舊居 掘得古酒盞 及酒臺 有七言律 (1) 以八分書臺面者 卽唐末 翁綬詩也 詩曰 陶署迎春復送秋 無非綠蟻滿杯浮 百年莫惜千面醉 一盞能銷萬古愁 幾爲芳菲眠細草 曾因雨雪上高樓 平生名利關心者 不識狂歌到白頭 其後 (2) 有松峴閣三字 意者 姓閔而居松峴者 嗜酒能詩 自放於山水之間 寓意於斯作也 (3) 但酒器製造既古怪 決非近代之物 若論其世 在勝國無疑也 餘亦酒人乎(好?) 游摩挲遺迹 尙友於千載之上 遂次其韻(參考) 葵亭의 『次古酒器韻』酒人仙去幾春秋 鯨 飲當時大白浮 八句題誰留古跡 一樽對自遣窮愁 提携每憶眠芳草 酩酊還思上雪樓 長物家貧猶有此 肯將名利到心頭

라 하였다. 이는 葵亭이 尙州 永順里의 舊第에서 옛 술盞과 酒臺(盞臺?)를 掘得하였는데 그 臺面에는 八分(書體)으로 唐末의 詩人 翁綬의 七言律詩가 (여기에서는 詩를 略한) 쓰여져 있고 그 뒤에는 松峴閣三字가 보이는 바 이는 閔姓人으로 松峴에 사는 者가 술을 즐기고 詩에 能하여 스스로 山水 사이에 논이던 터로 뜻을 翁綬의 詩에 붙인 것이라 解釋하고 그 酒器는 製造한 品이 古하고 奇怪하여 決코 近代의 物건이 아니며 時代를 論한다면 勝國 卽 前朝인 高麗임이 疑心없다고 斷定하고 自己도 酒人이며 놀기를 좋아하며 遺物을 어루만지면서 手載의 前사람과 벗하는 意味로 그 韻을 따라 「酒人仙去 云云」의 詩를 지어 和答한다는 것이다. 特別히 이 序에서 留意할 點은 (1) 「八分體」로 臺面에 썼(書)다」는 것인 바 元來 本序의 文面에는 掘得한 酒器에 對하여 그것이 金屬器인지 陶磁인

지가 指摘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以八分書臺面」의 書.로써 推察하여 보면 이것은 分明히 金屬에 鏤刻한 것이 아니오 陶磁器面에 毛筆로 글 고 燒造한 것임을 意味하는 것이며 (2) 「松峴閣」이라 한 것은 葵亭도 이미 指摘한 바와 같이 松峴(地名)註에 사는 閔氏의 意味로 解釋하여야 할 것 인 바 여기에 있어서도 「松峴閣」이 그 詩의 筆寫者의 落款인지 或은 器物主의 標識인지 未詳한다. 葵亭은 翁綬의 詩에 「松峴閣」을 關聯시키려 하였으나 그것이 酒器인 만큼 酒에 關한 詩를 써 놓는데 不過하다 할 것으로서 반드시 兩者(詩와 閔)를 關聯시키 必要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陶磁器에 흔히 그것의 所屬處가 記錄되어 있는 例로 보아 「松峴閣」은 松峴閣氏의 所有임을 標識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序에 보이는 「其後 有松峴閣三字」의 「其後」도 그 酒臺의 裡面을 가르킨 것인듯 함) 그리고 松峴閣氏가 酒器에 까지 標識된 것으로 보면 該氏가 當代의 名家이었던 것으로 想像되며 八分體의 律詩와 아울러 形態가 古怪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그 酒器는 名工의 솜씨로 만들어졌던 것인듯 하다. (3) 年代에 있어 葵亭은 特別히 製造의 古怪함을 들며 決코 近代의 物건이 아니오 高麗의 것임이 의심없다고 까지 斷定한 것으로나 또는 近三百年前에 出土되었 다는 點等으로 미루어 보아 그것이 高麗器임에 틀림 없었던 것임을 다시 금 推定할 수가 있는 것이다.

〔註〕松峴은 尙州의 古地名으로 慶尙道地理志 尙州道 尙州牧官條 및 東國輿地勝覽 卷二八 尙州 山川條에도 보임

高麗青銅梵鐘의 新例 四

黃 壽 永

今年에 出土된 銅鐘으로서 筆者가 最近에 調査한 兩例가 있어 紹介하